

아주대의료원소식 10

2005

통권 제 129호 / 발행일 2005. 10. 1 / 발행인 겸 편집인 박기현 / 발행처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443-721) 전 화 (031) 219-5114

· 목 차 ·

- 2 포커스 I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 증축 기
공식 가져
- 3 포커스 II
「세포치류제 제조기술 개발」 연구과
제 개시식 열어
- 4 질병정보 I
조기 검사만이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
예방
- 6 11주년 기념행사
의료원 11주년 기념식 및 「아주사회
봉사단」 발대식 성료
- 10 질병정보 II
피부가 하얗게 탈색되는 백반증
- 12 나의 연구 나의 테마
소아 정형분야 세계 최고의 진료를
위하여
- 13 유명인과 질병
직연 습관이 부른 프로이트의 구개암
-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치료내시경의 최고 실력자, 소화기내
과 김진홍 교수
- 16 소중한 인연
가망 없다 포기한 수술 집도한 생명
의 은인
- 18 내 꿈꾸는 의료인
실력과 마음의 여유를 가진 의사
- 19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봉사후기
집 보다 귀한 사랑을 지어주세요
- 20 우리 병원 어떻게습니까
「진주중성 중이염 수술 받으려고 멀
리서 찾아 온 병원
- 21 AMC News
- 26 건강 Q & A
- 표재성 혈전이라는데 어떻게 하나요
- 치료 받은 치아 금속관에 구멍났어요
- 28 병동 클리
7층 서병동
- 30 의료정보 소개
자동항법(영상안내) 수술장비
- 31 협력병원 탐방
인술로 사랑을 실천하는 다보스병원
- 32 의료원발전 후원내역
- 34 전문클리닉 소식
- 35 진료시간표

꿈을 향한 새출발

- 신임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에 박기현 교수 -



아주대학교는 신임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에 박기현 교수(이비인후과)를 임명했습니다. 지난달 아주대학교병원 신임 원장에 소의영 교수를 임명한지 한달만의 일입니다. 이로써 아주대학교의료원은 박기현 의료원장을 정점으로 문창현 학장, 소의영 병원장, 박명철 기획조정실장, 허균 연구지원실장의 체제로 운영됩니다.

박기현 의료원장은 이미 의과대학장 재직시절부터 학생들의 눈높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으로, 병원의 의료서비스에도 환자의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포장하는 온갖 화려한 언사를 넘어, 환자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진실된 마음이자 자세입니다.

명가의 음식 특징이 주인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면 상에 오르지 못하듯이, 아주대학교의료원의 교육, 의료서비스에 많은 기대를, 쓴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 증축 기공식 가져



▲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 증축 조감도



▲ 증축 기공식에 참석한 내외빈이 첫삽을 뜨고 있다.

아 주대의료원은 2005년 9월27일 화요일 오전 11시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 증축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윤원석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장, 서문호 교학부총장, 박기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문창현 의과대학장, 순천성가톨릭병원 민미에 병원장 등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하여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 증축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번 증축공사는 오는 2006년 12월30일 완공예정으로, 지상 1층~지상 5층 총 1,148.88평이 증축될 예정이다. 기존의 1층 450평의 응급의료센터 공간과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증축되는 1층은 환관 및 보호자 대기실, 고압산소실, 2층은 통원치료실(14병상), 3층은 응급중환자실(20병상), 응급의료정보센터, 4층은 응급의료센터 32병상(4인실 7개, 1인실 4개), 통합 콜센터 등이 위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응급병실 병상 32개, 응급중환자 병상 20개, 통원치료실 14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으며, 고압산소실, 응급의료정보센터, 통합 콜센터, 2.5톤 대용량 엘리베이터 등 체계적인 응급의료센터의 모습을 갖추므로써, 응급환자의 응급처치에서 입원 및 중환자 치료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환자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진료로 지역 주민들에게 한층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

게 되는 등 지역사회 응급환자 관리에 있어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증축되는 공간은 주요 바닥과 천장마감재를 항균처리된 비닐계 쉬트, 양면흡음텍스로, 병실벽체는 천연 소재로 도장마감하는 등 실내마감을 친환경재료로 했으며, 외부는 메탈 및 전면 유리를 사용하여 친숙한 열린 병원,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서 박기현 의료원장은 『증축 공사가 완료되면 최첨단 응급처치시설을 갖춘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동안 응급 환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다른 병원으로 돌려 보내야만 했던 안타까움과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진과 환자와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증축공사는 (주)대창기업에서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세포치료제 제조기술 개발」 연구과제 개시식 열어



▲ 세포의약품센터 헌판식



▲ 맨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오명 부총리, 손학규 경기도지사, 허범도 산업자원부차관보, 박재운 아주대 총장, 황우석 서울의대 교수의 축사모습과 민병현 교수의 과제설명 모습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지난 9월20일 화요일 오후 5시 병원 1층 로비에서 산업자원부로부터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으로 지정받은 「세포치료제 제조기술 개발」 연구과제 개시식 및 「세포의약품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세포치료제 제조기술 개발」 연구과제는 산업자원부, 경기도, 산업체 등으로부터 총 355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 이 과제를 수행할 세포의약품센터는 세포치료제의 상업화 및 세포치료제 제조 시스템 관련기술 확보와 개발된 세포치료제의 생산을 담당할 의주생산전문업체인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sm)를 경기도바이오센터에 설립하고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될 경우 위암 및 자궁암에 대한 면역세포 치료제, 뇌신경질환(파킨슨씨병, 치매)에 대한 세포치료제, 심근경색증에 대한 줄기세포치료제, 관절염의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가 임상단계 혹은 상품화까지 진행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손학규 경기도지사, 허범도 산업자원부 차관보, 남경필·이기우 국회의원, 김용서 수원시장, 황우석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 박재운 아주대총장, 김효철 의료원장 등 내외빈과 교직원, 학생 150여명이 참석하여 경기도의 첨단 BT 산업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한편, 대규모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연구과제의 시작을 축

하였다.

박재운 아주대총장은 환영사에서 『세포치료제 제조기술 개발과제 개시식은 산·학·연·정 협동사업의 모델 케이스로 당뇨병, 신경계질환 등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과학기술로부터 얻어지는 이득이 당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계속 되어진다』며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과학기술과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아주대학교에서 국가사업을 유치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밀력하나마 지원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에서 과학기술의 바탕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지방자치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과제를 이끌 정형외과 민병현 교수는 『국내 세포치료제의 기초연구 수준은 매우 뛰어나지만, 이를 상업화하는 기술은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세포치료제를 국제 규격에 맞춰 상업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개발한 세포치료제의 세계화, 대규모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기 검사만이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 예방

녹내장(glaucoma)이란 말의 어원은 본래 clouded(혼탁한)에 해당되는 그리스어로 심한 안압 상승으로 각막이 투명성을 잃어 본래의 광택과 색깔을 잃어버린 상태를 묘사한 데서 기원하였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안압의 상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을 받아 시야 장애 및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이다. 시신경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증상이 나타나므로 발견이 늦을 경우 실명할 수 있는 질환이다.

녹내장은 안압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이 원인

우리 눈 속에는 눈 속의 구조물들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물의 흐름이 있는데 이 물을 「방수」라 한다. 방수는 눈 속에서 생성되고, 눈 속의 특정한 구조를 거쳐 눈 밖으로 빠져나가 혈관 속으로 흡수가 되는데 생성되는 양과 빠져나가는 양이 같아야 눈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이 때 형성되는 눈 속의 압력을 안압이라 한다. 안압은 보통 10mmHg에서 21mmHg 사이를 정상으로 본다.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눌려서 손상을 받는 것이 주요 병인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안압이 정상 범위인 경우에도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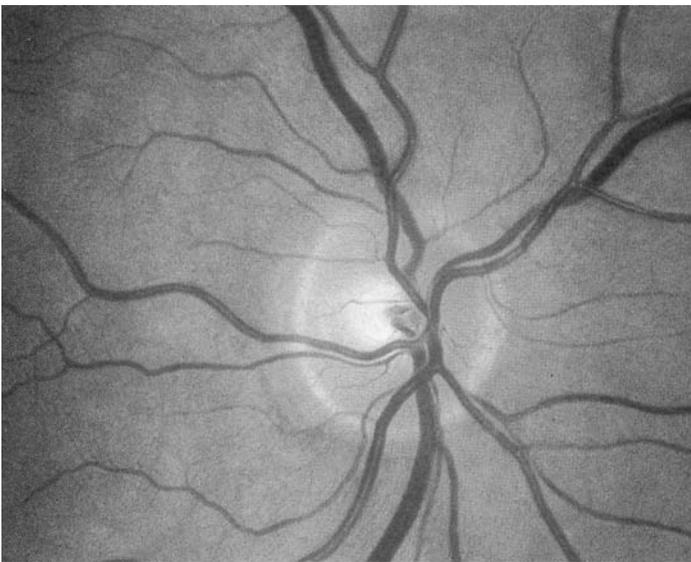
녹내장 환자는 흔하지만 증상은 거의 못느껴

녹내장은 인종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0세 이상 인구의 2% 내외(50명당 1명)가 녹내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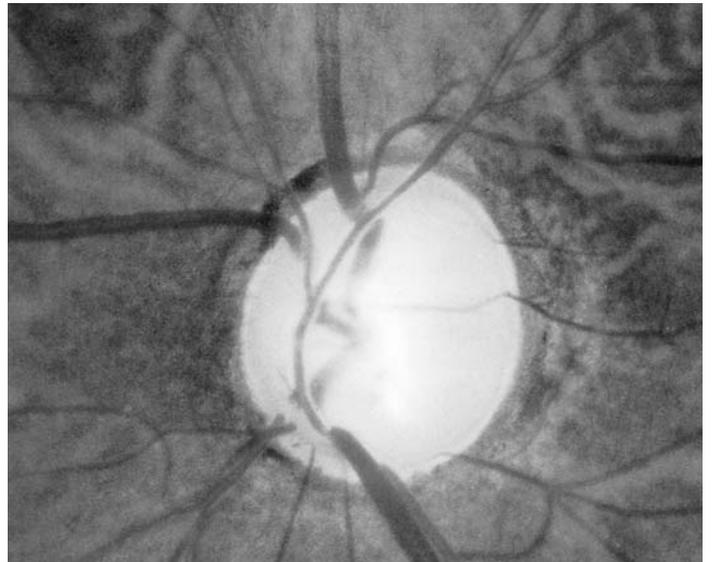
있다. 70대의 경우는 40대에 비해 3~8배 정도 증가한다. 즉, 상당히 흔한 병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녹내장으로 치료 받는 환자들은 더 적다. 그 이유는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병원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녹내장에 의한 시신경 손상의 특징은 주변 시야의 손상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시력은 거의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안과에 처음 올 때 이미 상당히 진행된 녹내장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안압이 갑자기 오르는 경우 눈의 통증과 두통 및 구역질이 날 수 있으나 대개의 녹내장은 안압이 서서히 오르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가족력, 근시, 당뇨병환자 환자 조심!

안압이 높은 사람들은 녹내장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자신의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 정기적으로 안과에서 안압을 측정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중에 녹내장 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15배 정도 위험성이 높다. 근시가 심한 경우도 녹내장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당뇨병 환자도 녹내장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 외에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사용해 왔던지 이 전에 눈 수술이나 눈에 외상을 받았던 경우에 녹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 편두통과 고혈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정상인의 시신경 모습



▲ 녹내장이 진행된 환자의 시신경 모습

녹내장 환자의 시야 협착이 진행되는 과정



▲ 정상 시야



▲ 중증도의 시야 협착



▲ 상당히 진행된 시야 협착

녹내장 진단 간편해

녹내장의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는 안압검사, 시야검사, 시신경검사이다. 안압은 눈에 직접 기구를 대고 측정하는 방식과 눈에 기구를 대지 않고 측정하는 방식이 모두 사용되며 접촉성 방식이 더 정확하나 눈의 감염 등을 막기 위해 초진이나 병의 진행상 정밀한 측정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접촉성 안압계도 사용되고 있다. 시야검사는 자동시야검사계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가 보이는지를 환자의 빛에 대한 반응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녹내장 유무와 심한 정도를 진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신경검사는 시신경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거나 시신경 단층촬영(OCT) 장비를 이용하여 시신경 손상의 정도를 판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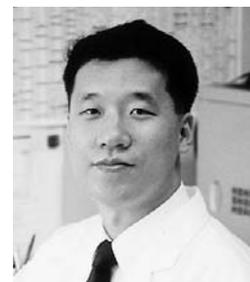
녹내장 치료는 진행을 막는 것

현재까지 알려진 녹내장의 치료는 높아진 안압을 정상으로 낮추는 것으로, 시신경이 안압에 의해 완전히 손상되기 전에 안압을 낮추어 주면 더 이상의 시신경 손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회복될 수는 없다. 즉, 현재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며, 감소된 시야와 시력이 치료 후 향상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녹내장은 진행하기 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 발견으로 실명 막아

일반적으로 녹내장은 상당히 진행할 때까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녹내장을 진단할 수 있는 안과적 검사를 조기에 받아 보는 것이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을 막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녹내장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 45세 이전에는 2년에 한번 ▲ 45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안과 검진을 받도록 권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 45세 이전에는 4년에 한번 ▲ 45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안재홍 교수 / 안과학교실

의료원 11주년 기념식 및 「아주사회봉사단」발대식



아주대학교의료원은 11주년을 맞아 지난 9월12일 월요일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1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내외빈과 1,00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하여 의료원 11주년을 축하했고, 아주사회봉사단 발대식, 비전 전략 메시지 전달 등을 통해 전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의료원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기념식 1부에서는 장기근속 및 모범 교직원 표창과 아주사회봉사단 발대식이 거행됐고, 이어 탁승제 전략위원장의 비전 전략 메시지 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서울팝스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축하연주와 리셉션을 가졌다. 김효철 의료원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1년간 의료원 발전에 공헌한 교직원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의료원 변화의

첫 걸음은 교직원 개개인의 변화에서 시작되며 의료원 발전의 주체로 거듭날 때 우리의 비전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가장 뜻깊은 행사였던 아주사회봉사단 발대식은 이상진 사회사업팀장의 개회로 시작하여 안재홍 교수, 김보형 간호사, 시설관리팀 권세혁 직원 등 3명이 봉사단을 대표해 아주사회봉사단 선서문을 낭독함으로써 공식적인 발대를 공표했다.

200여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아주사회봉사단(단장 김효철)은 앞으로 의료봉사를 넘어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후원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구성원들도 의료진 뿐 아니라 직원, 협력업체, 교직원 가족 등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성료



AjOU



김효철 단장은 『아주사회봉사단은 개원 후 11년 동안 펼쳐온 사회 공헌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면서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교직원 개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아주대학교 의료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주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1994년 개원 초부터 ▲ 무의촌 의료봉사 ▲ 독거노인·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봉사, ▲ 저개발국가 해외의료 봉사 ▲ 재난지역 긴급 의료봉사 ▲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 사회복지 시설 보수공사 ▲ 독거노인 밑반찬 나누기 ▲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 ▲ 경기도 결식아동 후원 ▲ 피학대아동보호 지원 ▲ 희망의 김장나누기 ▲ 호스피스 지원 등 지난 11여년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AJOU 11주년 기념행사

꼼꼼함은
우리에게 맡겨라



꿀맛 같은
점심시간

아주대학교의료원은 11주년을 기념하여 근속상, 공로상, 특별상을 수여했다.

근속상은 진단검사의학교실 이위교 교수를 비롯하여 10년간 근무해 온 114명의 교직원에게 수여됐으며, 부상으로 금지환 2돈이 지급됐다.

공로상은 총장상, 의료원장상, 의과대학장상, 병원장상으로 구분했는데, 총장상은 인순일 기획팀장, 장학수 구매관리팀장에게 수여됐으며, 의료원장상은 박연옥 간호행정교육팀장 외 4명에게 수여됐다. 총장상과 의료원장상 수상자들에게는 공로패와 부상으로 해외연수여행 기회가 주어졌다. 의과대학장상은 교학팀 조원섭 직원 외 1명에게 수여됐으며, 병원장상은 원무팀 최두호 직원 외 9명에게 수여됐다. 의과대학장상과 병원장상은 공로패와 부상으로 50만원 상품권이 지급됐다.

또한 의료원은 병원 발전에 기여한 부서 및 단체, 개인을 선정하여 특별상을 수여했다. 특별상 단체부문에는 산업의학과, 원무팀, 상처관리팀이, 감사부문에는 진단검사의학과가 선정되어 상을 수상했다.

이외에 의과대학 학부모험의회 유명심 고문과 응급의료정보센터 김창성 직원, 장구자 자원봉사자, 목욕봉사팀을 비롯하여 대우정보시스템 외 7곳의 협력업체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우리도
기술자!



의료원의
영원한 가수

감정 몰입중

언제 소품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을까??



신나게
돌아보자고~~



- 106동
- 201 김마숙님 가정 Kim Ma Sook
 - 202 장순진님 가정 Chang Soon Jin
 - 101 오형근님 가정 Oh Hyeong Keun
 - 102 미영주님 가정 Lee Young Ju

비바람에도
그덕 없어야...



혹시 선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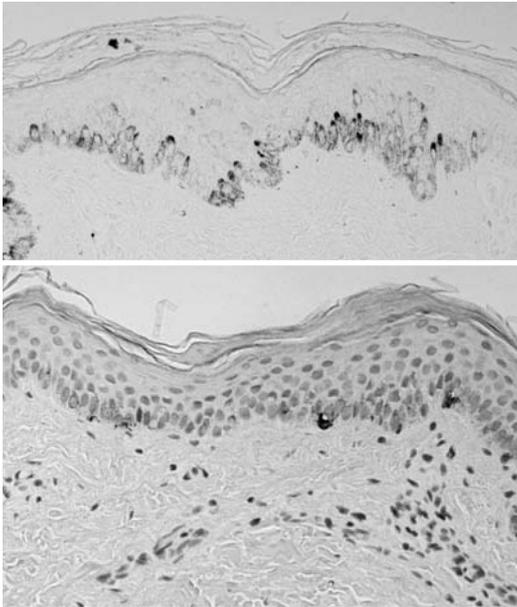
피부가 하얗게 탈색되는 백반증

백반증(vitiligo)은 피부가 하얗게 탈색되는 병이다. 백납이라고도 한다. 인구의 약 1%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하니 비교적 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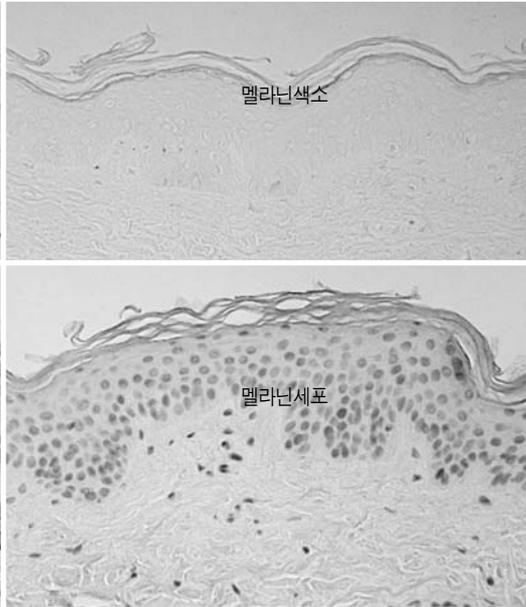
백반증을 이해하려면 멜라닌 세포와 멜라닌 색소에 대해 알아야 한다. 피부의 색, 특히 하얗고 까만 정도는 멜라닌이라는 갈색 색소에 의해 결정된다. 백인은 멜라닌 색소가 적고 흑인은 상대적으로 많다. 멜라닌은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 내는데, 이 멜라닌 세포가 아예 없어지는 병이 백반증이다. 멜라닌 세포가 없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도 거의 없다.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것이다.

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다. 백인처럼 원래 피부색이 하얀 경우는 백반증 병변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나 마이클 잭슨과 같은 흑인의 경우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백반증으로 진단이 되면 환자들은 병변이 여기저기 번지는 것을 많이 염려한다. 실제 몸 여기저기 백반증이 있는 전신형의 경우는 몇 년 동안 변화 없이 그대로 있다가도 어느 해 갑자기 번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모든 백반증이 다 번지는 것은 아니다. 피부 분절을 따라 생긴 분절형 백반증은 아이들에게 잘 생기는데 1~2년 정도 크기가 커질 수는 있지만 대개 처음 발생한 형태 그대로 있고 더 이상 번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정상피부 |



| 백반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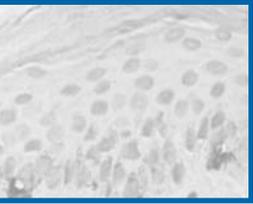
▲ 정상피부와 백반증 피부의 조직검사

멜라닌 세포가 있기는 하지만 적게 있거나 혹은 멜라닌 색소를 덜 만들어 내면 그때도 하얗게 보일 수가 있다. 탈색 모반(하얀 점), 백색 비강진(버짐), 염증 후 탈색 등의 피부병이 그 예인데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백반증을 걱정하고 병원에 오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 「우드등」이라는 특수자외선등을 이용한 검사나 피부조직검사 등을 해서 백반증인지 아닌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많은 환자들이 왜 백반증이 생기냐고 묻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다. 최근에 자외선을 비롯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멜라닌 세포 고사(apoptosis)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자가면역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인데, 드물지만 갑상선질환 같은 다른 자가면역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으니 혈액검사를 해야 한다.

치료는 주변 정상 피부와 모낭(털)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불러와서 다시 정상 피부색을 되찾는 것에 목적이 있다. 먹는 약, 바르는 약, 자외선, 레이저, 수술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전신에 백반증이 있으면 자외선

백반증을 걱정하는 이유는 얼굴이나 손 같은 노출부위에 있을 때 미용



▲ 백반증으로 오인되는 질환 : 탈색모반, 백색비강진



▲ 광선치료 후 색소침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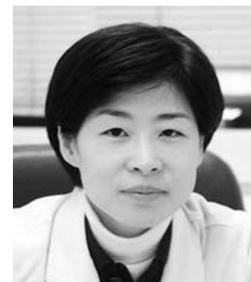
외선 치료를 대처할 만한 치료방법인데 어렵게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 마지막으로 수술을 고려한다.



▲ 분절형 백반증

치료(narrow band UVB)가 최선이다. 색소침착 뿐 아니라 면역 억제효과로 번지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 다른 치료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지만 일주일에 최소 두 번씩 병원에 와서 하고 효과가 있으면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얼굴이나 몸통의 백반증의 경우 빠르면 10회 정도의 자외선 치료 후 색소가 점 모양으로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뼈 돌출부위나 손, 발 등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은 편이다. 국소적으로 백반증이 있을 때는 먼저 연고를 바른다. 과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타크로리무스(tacrolimus) 연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3개월 정도 발라서 효과가 없으면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개발된 엑시머 레이저는 국소적으로 백반증이 있을 때 자



강 희 영 교수 / 피부과학교실



소아 정형분야 세계 최고의 진료를 위하여

깊어 가는 가을 하늘, 푸른 하늘빛도 점차 깊어 간다. 내가 의사의 길을 선택한 것은 초등학교 시절 한 사건 때문이다. 우리 반의 한 아이가 지금의 병명으로 하면 백혈병으로 우리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 일이 있었을 즈음 담임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그 아이의 치료와 치료를 맡은 의사 선생님을 위해 기도를 하셨다. 나는 그 후로 어머니께 의사가 되겠다고 했고, 자세한 이유를 모르시던 어머니도 잘하라고 하셨다.



▲ 러시아 일리자로프센터 방문 기념 사진

대학 진학을 놓고 고민할 무렵 내게 신념과 의지가 되어 준 종교적인 이유로 나는 기독교 학교인 세브란스를 희망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나의 희망 분야는 소아과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본과 3학년(5학년) 당시 소아과 실습 중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지는 아이들을 보며 나의 감성적 능력으로는 죽어가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꼈고, 그 후 내가 가진 손재주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흥미 있는 분야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정형외과였다.

정형외과를 배우며 참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게 됐는데,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남을 가르치는 교수직에 대한 매력도 느꼈던 것 같다. 군 복무(전문의 취득 후)를 마치고 어느 분야가 내게 어울릴까를 생각하던 중 작은 것을 다루는 것이 좋아 손(수부)을 공부하며 소아 분야와 변형 교정 분야를 같이 공부하게 되었다. 소아 분야는 내가 의사의 길을 선택하게 해 준 길잡이었기에 흥미를 잃지 않고 쉽게 공부해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이 현재의 나의 주 전공 「소아정형(변형교정, 키를 리는 수술)」이다.

전공이 소아 정형외과와 변형 교정이라 많은 선천성 문제를 가진 아이와 부모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큰 보람과 성취감을, 때로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여전히 아이들과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가 무엇일까 고민하며 연구하게 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더욱이 아이들과 크게 다친 환자의 후유증을 대할 때

면 보다 나은 지식과 기술로 세계 최고의 진료를 제공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다시한번 나를 추스르게 된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외고정 변형 교정에 성공한 러시아의 일리자로프 센터를 방문했다. 우리나라보다 여건은 좋지 않지만 부분 부분에 있어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배움을 얻었다.

앞으로 선천적 기형이나 외상 후 후유증으로 인해 변형을 가진 환자, 다리 길이가 짝짝인 환자 등을 위해 세포 치료 분야와 최적의 변형 교정 등을 연구하고, 수술 전 초음파를 이용한 비침습적 방법(칼을 데지 않고 성장을 조절하는)을 연구하여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수 년 내에 아이들에게, 환자들에게 세계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말이다.



조재호 교수 / 정형외과학교실



꺾연 습관이 부른 프로이트의 구개암

어떤 문학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글쟁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글은 담배연기를 먹고 태어난다고 말한다. 재미있는 표현이다. 문학가 뿐 아니라 실로 담배에 얽힌 에피소드는 무궁무진하다.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나는 가벼운 술 한 잔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프로이트는 강변한다. 19세기 말의 비엔나, 그의 응접실에서는 매주 수요일 밤 10명의 진지한 사람들이 인간의 정신을 토론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있었다. 프로이트의 정신의학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다. 취하지 않는 토론 모임은 칭찬할 만 한데도 프로이트의 말년은 본받을 만 한 것은 아니었다. 시가 체인 스모커였던 그는 30회에 이르는 수술을 받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병마는 다름 아닌 구개암(口蓋癌)이었다.

인체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입천정(구개)도 상피조직으로 덮여있다. 암종이라는 것이 개체를 죽음으로 몰고 갈만큼 상피세포가 이상증식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구개암이란 입천정에 생긴 상피의 이상증식이란 이야기다. 구개암은 설암, 치은암 등과 함께 구강암의 하나로 구강암의 빈도가 전체 암종 중의 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록 흔한 암종은 아니다. 그러나 식사나 호흡 등 생명 현상과 관련될 뿐 아니라 사회 생활에 꼭 필요한 웃음이나 좋은 인상 등 얼굴 부위에 발생하는 암종이라는 점에서 발생 빈도에 비하여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암종의 치료는 외과적인 절제가 주를 이루는데 보조적으로 방사선치료법이나 항암요법이 병행될 수 있다. 백혈병 등의 혈액 종양이 꼭 수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과는 달리 암종은 반드시 수술을 필요로 한다. 구개암은 입천정에 생긴 암종이므로 입천정과 관련된 코, 광대뼈, 목구멍, 기도 등의 부속기관이 같이 절제되거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후유증을 동반하게 된다. 없어진 얼굴 부위는 식사 등 본능적인 생활 뿐 아니라 대인관계 등의 사회 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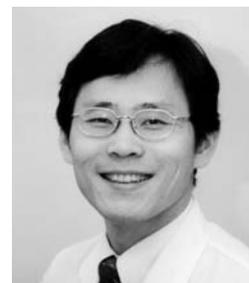


종에 관해서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설사 암종이 발병되었다 하더라도 조기 발견으로 치료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세계적으로 암종과의 투쟁에 있어서 성공률이 아직까지는 그리 높지 않다. 어느 환자가 암종에 걸렸을 경우 병기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달라지는데 대개 암종 치료 후 5년간 생존하면 그 이후의 생존율이 높다는 것이 알려져서 5년 생존율을 암의 치료 후 예후 지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 구강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5년 생존율이

절반을 넘기기가 힘든 실정이다. 국가적으로도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각종 치료, 암종에 관한 각종 연구 등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암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 검진 등 꾸준한 관심과 건강 증진을 위한 평소의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하겠다. 구개암은 여러 원인 요소 중에서 꺾연 습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암종 중의 하나이다. 상식적으로도 입천정이 입안에 머금은 담배 연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 여겨지는 만큼 당연한 결론이라 하겠다. 담배 연기를 먹고 태어나는 문학작품이 아무리 세인의 심금을 울린다 해도, 프로이트가 아무리 정신의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해도, 구강 건강을 위하여 흡연 문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정근 주임교수 / 치과학교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치료내시경의 최고 실력자, 소화기내과 김진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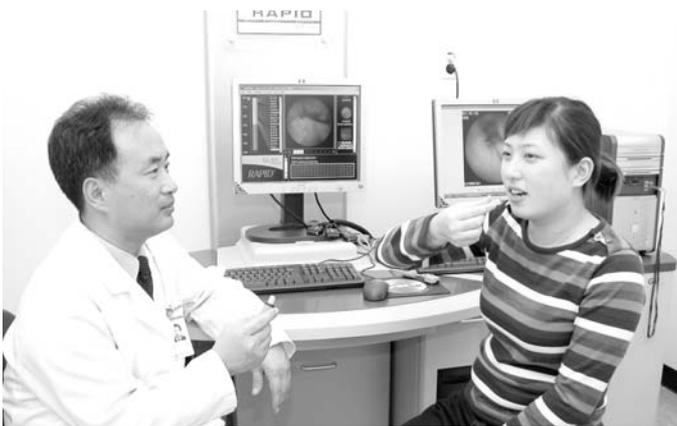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다니면서 정작 주치의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다. 어떤 분야에 전문가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진료철학이 무엇인지, 관심사는 무엇인지 등등 주치의에 대해 궁금한 게 사실이다. 확대경을 통해 그의 삶을 보면서, 아주대학교병원 의사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에는 소화기내과 김진홍 교수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환자의 99%, 덜 아프고 편하다」

올 초 방송과 일간지에 보도된 「코를 통해 검사하는 위내시경」에 대한 설명이다. 환자에게 보다 편하고 만족한 치료를 받게 하려는 아주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진홍 교수의 험 없는 연구결과다.

치료내시경을 이용한 위장관질환 치료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실력자로 손꼽히는 김진홍 교수. 환자의 편의를 우선하는 그의 고민과 노력은 1995년을 거슬러 올라가 세계 최초로 말기 위암환자에서 위유문부 코일형 인공도관 삽입술을 성공시켰고, 이후 내시경적 인공도관 삽입술, 「로프웨이」를 이용한 소장내시경 시술, 캡슐내시경, 코를 통한 위내시경 등 최신 진단 및 치료방법을 도입하여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해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1998년 7월에 위암말기 환자에게 위유문부 인공도관 삽입술을 시행한다는 KBS 뉴스 보도가 나온 후 『사는 동안 입으로 먹을 수만 있게 해달라』며 몰려드는 환자를 뿌리치지 못해 약 3개월 가량은 새벽 1시까지 시술에 매달리기도 했다.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기기에 관심이 많았던 탓인지 김진홍 교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남들이 안 하는 것, 새로운 것이라도 적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개척자의 길이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고된 작업임에도 그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개척에는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길만 고집스레 파고 드는 그에게 어느새 2003년 동아일보가 조사한 「국내 담취장 질환 치료 12인의 명의」에 선정, 1991, 99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최우수 논문상 두차례 수상, 스탠트(인체의 협착 부위를 확장시킬 때 사용하는 인공도관) 관련 특허 4가지 보유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다. 이런 개척정신의 역사는 80년대 말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현재 순천향대학교병원장이자 치료내시경 분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심찬섭 교수에게 수학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



교수



위장관질환 내시경치료의 최고 실력자

환자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새로운 길도 두려워하지 않는 개척자

다. 『당시만 해도 치료내시경은 이제 막 시작하는 학문이었다 터라 연구하거나 시도하는 것들마다 흥미롭고 재미(?)있었다』며 『발표하는 결과도 모두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였다』고 말하는 그는 다른 분야를 해보고 싶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치료내시경 분야는 앞으로도 할 일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다른 일은 할 수가 없다고 웃어 넘긴다.

자신을 임상가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김진홍 교수의 최근 연구내용은 「점막하 종양의 내시경적 치료」. 종양이 위 점막 안쪽에 감춰져 있어 내시경으로 치료하기에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려 외국에도 적용 사례가 없는 신기술이다. 왜 위험하고 힘든 일을 자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의 대답은 간단하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수술 보다는 간단하고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이미 일본에서 열린 한·일내시경학회와 미국소화기병학회에서 발표를 마쳤고 곧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소화기학회에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홍 교수는 현재 아주대학교병원 내과부장과 소화기내과 임상과장을 맡고 있다. 부서 운영자로서 그의 최근 관심사는 소화기내시경 당일 검사이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환자의 경우 검사 후 결과 확인까지 걸리는 3~4번의 방문횟수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개인 병원처럼 당일 진료·내시경검사·결과 확인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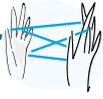
부서의 전반적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있다. 부서 운영에 있어 김진홍 교수의 특징은 자율성이다. 소화기내과 병동에 근무하지 얼마 되지 않은 한 간호사는 「소화기내과 발전을 위한 모임」에 갔다가 상하간 허

물없고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와 평소에는 무뚝뚝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직원의 사소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김진홍 교수의 태도에 적잖이 놀랐다고 귀뜸해 줬다. 어쩌면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만큼은 빈틈 없이 확인하고 이외의 모든 일을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그의 방식 때문에 소화기내과 전공의가 책임감이 강하고 환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 환자들로부터 불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닐까. 의사로서 환자에

게 만족감을 주고, 부서원이 편하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의 경영 능력도 높은 점수를 줄만 하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시도도 마다하지 않는 치료내시경의 최고 실력자. 25년간 윈드서핑, 수상스키, 스킨스쿠버를 꾸준히 해 운동 실력과 체력이 남부럽지 않은 남자. 학부시절 밤새 연습한 덕분에 수준급의 그림 실력으로 지인들에게 선물할 줄 아는 여유로운 중년. 「일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놀 때는 제대로 놀아야 한다」는 그의 주장처럼 일과 삶 모두를 제대로 운영할 줄 아는 멋스러운 의사다.

〈 신미정 / 홍보팀 〉



가망 없다 포기한 수술 집도한 생명의 은인

4년 전 검사를 받다가 뇌종양을 발견, 수술했으나 재발하여 아주대학교병원을 찾은 여대생 허선영씨. 주치의 신경외과 조경기 교수의 진료실에서 뇌와 척수의 종양을 완전히 제거해 내고 수술 합병증인 안면마비까지 극복한 사연을 들어봤다.

환자분은 본인이 뇌종양과 척수종양이란 것을 언제 알게 되셨는지요?

2001년 초 평소에도 약간씩 있던 가슴 통증이 심해져 제주도의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슴에 혈관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기 위해 그 해 5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관종 수술을 위해 검사를 받던 중 MRI 검사에서 머리와 척수의 종양이 발견되어, 바로 입원하여 혈관종 수술을 받고 약 10일 정도 후에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주치의를 조경기 교수님으로 선택하신 사연이 있나요? 첫 진료를 받으시면서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뇌종양 수술 후 얼마 되지 않아 재발했고 안면마비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저를 수술했던 병원의 주치의가 일본으로 연수를 떠난 상태라 압전분병원과 유명 국립대학병원을 찾아갔으나 수술을 하기 어렵다는 대답만 듣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걷는 게 힘이 들고 말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지내던 어느날, 우연히 TV에 출연한 조경기 교수님을 보고 인터넷을 통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번 만나나 보자는 심정으로 찾아 온 2004년 3월4일, 신경외과 외래에서 처음 본 조경기 교수님은 진료실 분위기와 어울려 편안하면서 포근했습니다. 저를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수술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교수님을 보면서 『이젠 됐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발 후 병원을 찾으신 셈인데, 진단을 위해 어떤 검사를 했는지 조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혈관조영촬영은 뇌 속 혈관들의 존재와 분포를 알아내는 검사다. 혈관 촬영을 할 때 다리로 내려가는 대퇴동맥에 머리카락보다 약간 더 굵은 가는 관을 삽입하여 대동맥을 경유하여 뇌로 들어가는 경동맥과 내경동맥내로 관을 삽입한 후, 이관을 통하여 조영제를 주입하게 되면 일반 방사선 촬영에서 보이지 않던 뇌혈관의 촬영이 가능하게 되어 중요 혈관과 종양과의 관계를 수술 전에 확인이 가능하여 수술의 방향이나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종양내로 액체풀과 같은 물질을 주사하여 수술시 출혈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외래에서는 우선 척추 MRI를 촬영했고, 바로 입원하여 기본적인 수술 전 검사와 함께 머리 부분의 CT와 혈관조영촬영*을 했습니다. CT 및 MRI는 종양의 위치, 정상조직과의 관계, 조영제 투여전후의 변화 등을 통해 종양의 위치, 확산범위를 추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세한 변화까지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양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척수와 뇌의 종양 상태를 확인한 결과, 그나마 양성이라 다행이긴 했으나 뇌에 있는 종양의 크기가 상당히 커져 있어 소뇌가 압박을 받아 보행장애, 안면마비, 언어장애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뇌종양으로 진단된 후 수술과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3월23일과 4월2일 두 번의 뇌기저부 수술로 직경 10cm 크기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고 과거의 수술 합병증으로 발생한 안면신경 마비에 대한 안면신경 이식수술도 동시에 시행하여 지금은 안면신경 마비증세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조경기 교수님이 그 때까지 하신 수술 중 가장 큰 종양이라고 했습니다. 뇌 수술에 이어 올 4월20일에는 척수경막의 종양 제거수술을 했습니다. 뇌기능 개선 목적의 약물은 현재 까지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수술과 치료과정에서 완치에 대한 불안함이나 재발 가능성 등 두려움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고생과 뒷바라지 덕분에 마음을 단단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의 긴 입원생활 중 저를 간호해 줬던 인보간 병의 김정숙님이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많이 해 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됐고 제가 용기를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종교(천주교)도 제 마음을 다스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 힘이 드는 운동을 할 수 없어서 4년 전부터 해 온 단전호흡을 운동 삼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맵고 짜며 자극적 음식은 되도록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경기 교수님, 뇌종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치의로서 환자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며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선영 환지분의 경우 의학적으로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두 군데의 종양이 완전 적출되어 거의 완치로 보고 있습니다. 수술 후 숨 쉬거나 걷는 것이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운동을 통해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전호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등산과 같이 많이 걷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음식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는 없지만 맵고 짠 음식, 탄 음식 등 몸에 해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살려면 반드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 미 정 / 홍보팀 >

뇌종양이란?

뇌종양에는 양성과 악성이 있으나, 양성이라도 부피가 커짐에 따라 뇌조직이 압박되어 아주 위험하게 되기 때문에 신체의 다른 부분에 비해 구별할 필요는 없다. 악성 뇌종양이라도 단 부위로 옮겨지는 일은 거의 없으나 다른 장기에 생긴 악성종양이 뇌로 옮겨지는 경우는 많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원인은 잘 모르고 성인과 소아에 각각 특유의 뇌종양이 있다. 뇌가 압박되면 뇌압이 올라가서 두통, 토기, 구토 등이 일어난다. 눈의 신경이 압박되어 시력저하와 복시, 사시 등이 생기고, 압박이 더 심해지면 직접 뇌손상이 일어나며 그 부위에 따라 특징적인 기능장애가 나타난다.

신경증상을 관찰하여 종양의 부위를 추정할 수 있으나 CT 및 MRI 촬영이 진단에 절대적이며 뇌파, 단순 두부 X선 촬영, 안저검사, 척수액검사도 도움이 된다. 치료의 기본은 종양의 적출수술이며, 양성종양은 완치가 될 때도 있다.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방사선요법을 쓰기도 한다. 수술 불가능 부위에 발생한 경우나 광범위한 침윤, 종양 자체의 성질상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방사선요법, 때로는 화학요법, 면역요법 등을 적용하는 종류의 뇌종양도 있다. 일반적으로 악성의 경우 완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주치의 조경기 교수는...

조경기 교수의 전문진료분야는 뇌종양 및 척추질환. 1985년부터 2년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학 뇌종양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유고슬라비아 루블리나 대학에서 뇌기저부 종양수술의 세계적 권위자인 돌렌박사에게 뇌기저부 수술 수기를 전수 받았다. 조경기 교수는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기록되는 많은 연구와 새로운 치료법을 보유하고 있다. 디스크 환자에게 국소마취하에 경피적 방법으로 주사기(뉴클레오템)를 이용하여 수핵을 흡입 절단하는 시술, 악성 뇌종양 환자에서 뇌경위술을 이용하여 국소마취하에 동위원소 캡슐을 뇌종양 내에 삽입하여 종양을 치료하는 근접방사선 치료법, 머리를 열지 않고 눈썹을 따라 3-4cm 절개하여 뇌기저부를 통해 뇌를 최대한 보존하며 종양이나 동맥류를 치료하는 수술기법 등을 국내 최초로 선보여 좋은 치료결과를 얻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1996년부터 「흠미움」이라는 동위원소 물질을 낭성종양에 삽입, 두개골을 열지 않고도 종양을 치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뇌종양 및 뇌졸중에서의 줄기세포 뇌이식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대한뇌종양학회 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 서울-경인지회 회장 및 대한통증학회부회장 등 중책을 맡고 있다.



실력과 마음의 여유를 가진 의사

돌이켜 보면 나는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연구원이신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과학고로 진학한 탓에 자연스럽게 과학과목에 흥미를 느끼고 공부하며 진로에 대한 큰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의사가 돼야겠다는 최초의 생각은 입원하신 증조할머니를 간병했던 경험에서 시작됐는데, 그 때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가치와 중요성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 병원에서 의지할 사람은 오직 의사 뿐이었고, 환자인 할머니의 증상과 그 치료가 「의사 선생님」의 결정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다. 「의사」라는 직업 뒤에 「선생님」이란 호칭을 붙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다.

난 아직 의사가 아니다. 단지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일 뿐이다. 의대생인 지금은 수많은 표들과 족보를 외우면서 정작 왜 외워야 하는지,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 채 지나가고 있다. 아직은 의사가 되지 않았기에, 의사에 관한 나의 지식들도 단지 아는 선배를 통해 보고 들은 단편적인 얘기일 뿐이다. 그렇지만 아직 학생이기에 그만큼 여유를 갖고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다.

과거에 어느 통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바람직한 의사로 생각하는 사람은 「허준」이라는 결과를 본 적이 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드라마의 영향도 있겠지만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진하게 보살펴 주는 그런 의사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해 본다. 「허준」처럼 환자를 자신의 몸과 같이 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의학적으로 올바르고 환자에게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치료를 알고,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의학에 더욱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실력을 갖춘 의사가 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또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기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 했던가. 현대 의학으로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은 드물기에 의사는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하늘에 맡기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사라는 직업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 중 하나임 틀림없을 듯싶다.

마지막으로 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의사가 되고 싶다. 앞으로 의사가 되면 시간의 여유는 없어지겠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여유까지 잃고 싶지는 않다. 마음

의 여유를 갖고 환자를 대한다면 더욱 친절할 것이고, 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서 의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소중한 직업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부끄럽지 않을 실력을 갖추고 최선을 다하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베풀며 살아갈 미래 의사로서의 내 모습을 기대해 본다.

손성연 학생 / 의학부 6학년



집보다 귀한 사랑을 지어요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지난 9월5일부터 9일까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동참했다. 천안시 목천읍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보다 귀한 사랑」을 전하고 온 봉사후기를 들어본다.



내가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여한 날은 일주일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 금요일. 그동안 의료원 참가자들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여러 조로 나뉘어져 몰딩작업과 바닥에 떨어진 페인트 벗겨내기 그리고 주변정리 및 청소 등 각자 맡은 업무를 시작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페인트를 벗겨내기 위해 도구를 들고 쭈그리고 앉았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긁어내기 시작했다. 땀을 내리고 운동을 할 때도 안 흐르던 땀방울이 이마와 등줄기를 타고 흘러 내렸다. 여기 저기 페인트 긁어내는 소리가 마치 시원한 나무그늘 속의 매미울음 소리 같았다. 힘이 들고 팔 다리가 아팠다. 다소 기술력을 요하는 몰딩작업을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그 날 작업의 꽃이었다. 각도를 맞추어 자르고 떨어지지 않게 꼼꼼히 붙이는 모습들은 사랑과 정성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뿌연 먼지 속에서 함께 하며 힘들어도 웃으면서 격려하는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전사였다. 서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몸짓은 하나였다. 많은 봉사를 다녀봤지만, 이번 봉사는 봉사라기 보다는 「사랑의 성」을 쌓은 곳에 내 사랑을 주고 온 느낌이었다. 그곳에는 미리 입주한 사람들도 있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했다. 우리의 작은 힘과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다. 비록 참여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이었다.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만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지만, 해비타트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의 협동정신과 사랑, 봉

사, 자조, 자립, 나눔의 실천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데 충분할 것이다.

이런 값진 봉사활동에 아주대학교의료원이, 그 속에 나와 의료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뻐다. 우리가 움직여서 이루어진 일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조금씩 늘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비타트 운동은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는 운동 같다. 계층이나 연령을 초월한 자원 봉사자들의 땀과 정성으로 과도한 주거비용 때문에 좌절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소박하지만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줘 자립의 희망을 심어주지는 해비타트 운동의 목적에 어긋남이 없던 값진 하루였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에서 쏟아지는 아낌없는 봉사로 사랑의 집 한 채, 두 채가 우뚝우뚝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길 경 수 간호사 / 외래간호팀(중앙혈액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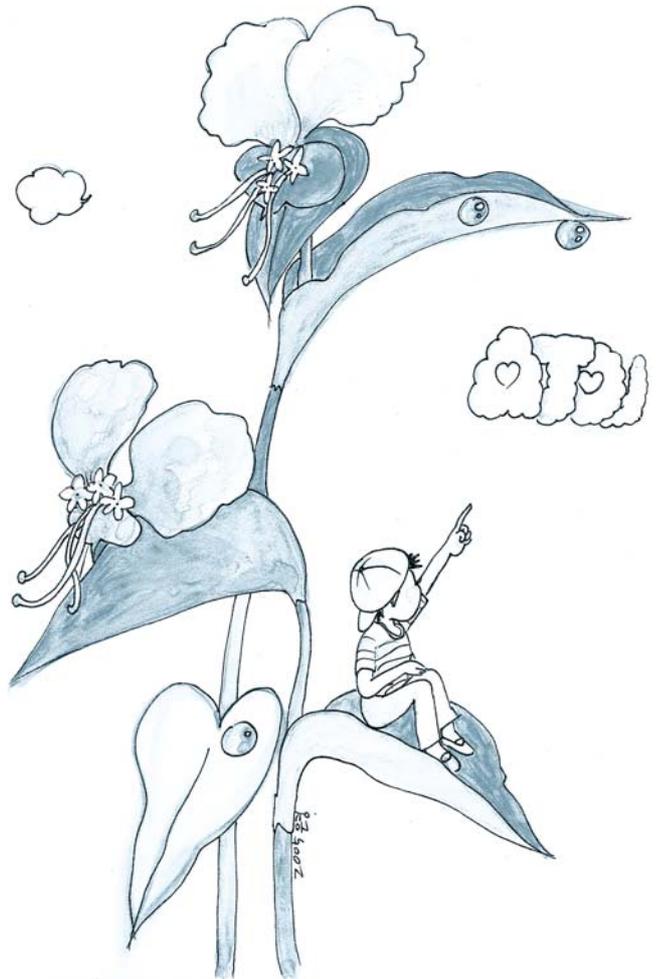
「진주종성 중이염」 수술 받으려고 멀리서 찾아온 병원

강 아지처럼 까만 눈을 반짝이며 현관에 들어서시는 우리 아이를 보면 얼마나 귀엽고 예쁘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잦은 감기와 인후염 때문에 자주 고열에 시달렸고, 감기약과 항생제 복용량만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엄마로서 늘 안쓰러웠지만 편도선 수술 후부터는 점차 감기 횟수도 줄고 호전되는 것 같아 건강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전화를 받고 있는 아이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는데, 상대방에게 안들린다고 자꾸 반문하는 아이를 보고 귀에 이상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자주 가던 이비인후과에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종합병원을 찾게 되었고, 고막에 염증이 심해서 약물로는 어렵고 튜브를 삽입하여 환기를 시켜주는 수술을 권해주었습니다. 바로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진주종성 중이염」.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아찔해서 한참을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퇴원답지 않은 퇴원을 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로운 잠에 빠져있는 고운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진주종성 중이염」은 수술이 까다롭고 합병증도 많은데다 재발률 또한 높아서 선택 병원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수술 경험이 많은 분을 찾는 것이었고, 여기 저기 알아본 결과 아주대학교 병원의 박기현 교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수원으로 낮은 도시의 화색빛 여행이 시작되었고, 어린이날이 지난 5일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수술도 힘들었지만 입원기간 동안의 기억은 지우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곧 큰 수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어린이날 받을 선물에만 한껏 들떠 있던 우리 아이는 수술을 받고 고통스럽게 10일을 보내야 했고, 그 때 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진행형인지 완료형인지 모른 채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재발의 공포가 공기처럼 늘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결국은 선한 길로, 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 들어 「감사」라는 단어가 참으로 새롭고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교만한 탓인지 그동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사건 없는 일상의 평범한 나날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픈데 없이 하루 세끼를 먹을 수 있고 저녁에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평화로운 일상이 몹시 그립습니다.



언제나 환자가 많아 시간과 싸우며 무더운 여름을 보내신 박기현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상당히 유명하신데도 진료실에서 뵙는 선생님의 모습은 늘 소탈하시고 환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보다 더 중요하고 몇 배 더 고통스럽게 병상을 지키고 계신 모든 환자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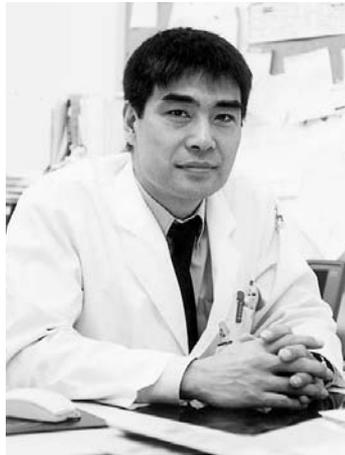
이비인후과 김선중 환자 어머니

의료원 ▶▶▶

제7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이비인후과 박기현 교수 임명 - 제1진료부원장에 신경외과 조기홍 교수 임명 -



▲ 박기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 조기홍 제1진료부원장

아주대학교는 9월26일 제7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박기현 교수를, 10월1일 신임 제1진료부원장에 조기홍 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박기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연세대 의대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를 거쳐 1994년부터 아주대 의대 교수, 의학문헌정보센터 소장, 의과대학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6차 세계이비인후과 면역 및 분자생물학회 사무총장, 대한청각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신임 조기홍 제1진료부원장은 1980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후 전주예수병원 신경외과 과장,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및 응급실장을 역임했다. 1995년부터 아주대 의대 신경외과학교실 교수로 봉직하고 있으며, 현재 의학문헌정보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제3회 「수원시 보건의료인 공로상」 시상식 개최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수원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3회 수원시 보건의료인 공로상 대상에 「서울정형외과 안태원 원장」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9월7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아주대학교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소병주 수원부시장, 신창기 경기일보 사장, 공병한 수원시의사회장, 김효철 전 아주대의료원장, 문창현 의과대학장, 소의영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대상을 받은 「서울정형외과 안태원 원장」은 화성, 병점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매월 찾아가 무료진료활동을 펼치고, 경제난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수술 및 치료를 무료로 해온 것을 비롯하여 년 4회 정도 몽골과 필리핀 등에서 해외 의료봉사를 해온 공로가 인정되어 이번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공로패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금상은 1997년부터 서울역 지하도 노숙자들과 보따리장사를 하며 노숙생활을 하는 조선족들을 위해 무료진료를 펼치고, 구로구 구로공단에 있는 조선족교회 외국인노동자, 수원시 고등동 외국인노동자 쉼터에서 정기적으로 무료진료, 해외 의료봉사 등을 해온 서울가정의학과 김일수 원장이, 은상은 2004년부터 매월 수원시 지동 수원제일교회 중국인에배당을 방문하여 무료진료를 펼치고 있는 아주대학교의료원 기독교신우회 의료봉사팀(단체)이 수상했다.



의료원,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동참

의료원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9월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천안시 목천읍 희망의 마을에서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동참했다. 이번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는 교직원 150여 명이 참여하여 목조건물의 건축 마무리, 실내마감작업, 도색, 도배 등을 실시했다. 이번에 짓는 희망의 마을에는 오는 9월30일 천안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9월 교직원 월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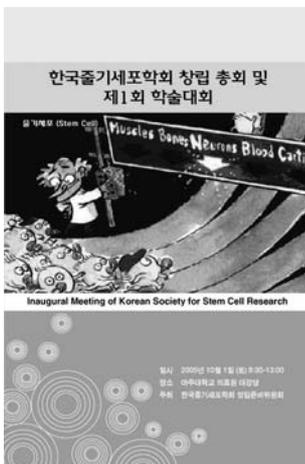
의료원은 지난 9월28일 수요일 오후 5시20분부터 7시30분까지 별관 대강당에서 9월 교직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8월 모범교직원으로 선정된 병동간호 2팀 회복실 이화숙 간호사를 시상하고,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으로 활동 중인 한비아 씨를 초청하여 「다바람 (Wind)의 딸, 바람(Hope)의 딸로 우리 앞에 다시 서다」를 주제로 한 특강을 가졌다.



개원 11주년 기념 단축마라톤대회 및 특별산행 개최

의료원은 개원 11주년을 맞아 교직원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단축마라톤대회와 특별산행을 실시한다. 마라톤대회는 지난 9월30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교직원 및 가족, 협력병원 및 협력업체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고, 산행은 오는 10월8일 토요일 오전 7시에 경기도 가평의 유명산으로 떠날 계획이다.

연구지원실 ▶▶▶



한국줄기세포학회 창립

한국줄기세포학회가 10월1일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한국줄기세포학회는 국내 줄기세포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생명과학자 및 의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국내 세포치료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며, 줄기세포의 기초연구 및 임상응용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줄기세포학회 설립 준비위원은 아주대 의대 뇌질환연구센터 김승업 소장을 위원장으로 ▲ 아주대 의대 중앙혈액내과 김효철 교수 ▲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 문신용 서울대 의대 줄기세포센터 소장 ▲ 왕규창 서울대 의대 학장 ▲ 정필훈 서울대 치대 학장 ▲ 황우석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제1회 학술대회에서는 ▲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현황 및 전망 ▲ 줄기세포 이식과 면역거부의 해결책 ▲ 골수줄기세포 및 난치성 뇌질환 치료를 위한 인간신경줄기세포의 이식 등이 발표되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각종 난치성질환의 치료전망 및 과제에 관한 연재발표,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토론이 진행된다.

〈 한국줄기세포학회 회원 가입 및 문의 : 홈페이지 www.stem-cell.or.kr 또는 학회사무실(031-219-4504) 〉

의과대학 ▶▶▶

아주대 의대 신규 교원 임용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신규 교원 4명(조교수 2명, 전임강사 2명)을 9월1일자로 임용했다.



▲ 뇌질환연구센터
김병곤 조교수



▲ 의학유전학과
정선용 조교수



▲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김혜진 전임강사



▲ 진단검사의학교실
이선민 전임강사



2005학년도 신입 교수 워크숍 개최

의과대학은 지난 9월24일 토요일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희망실에서 「2005학년도 신입교수 워크숍」을 실시했다. 문창현 의과대학장, 박명철 기획조정실장, 이은소 의학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 의학교육개론 : 배움과 가르침 ▲ 혁신적 의학교육과정 ▲ OSCE, COX, SP 소개 및 실제 적용 ▲ 시험문항 개발과 평가 ▲ 아주대 의대 시험문항 관리 현황 등 신입교수의 원활한 학생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방사선종양학교실 강승희 교수 해외연수 마치고 복귀



미국 아틀란타 에모리대학에서 1년간 연수한 방사선종양학교실 강승희 교수가 장기 해외연수를 마치고 지난 9월1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생화학교실 김수정 조교, 젊은 연구자상 수상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김수정 조교가 지난 9월7일 개최된 제18회 아시아 태평양 암학회에서 젊은 연구자상 (Young Investigator Award)을 수상했다. 김 조교가 수상한 논문 제목은 「Mitotic Checkpoint Dysfunction Induced by HBx Viral Oncoprotein」이다.

의학전문대학원 및 임상종합실습실운영 TFT 구성

의과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 TFT와 임상종합실습실운영 TFT를 구성, 팀장 및 팀원을 위촉했다. 의학전문대학원 TFT는 이은소 의학부장을 팀장으로 하여 이재호 교육연구담당학장보, 약리학교실 주일로 교수, 생리학교실 백은주 교수, 정신과학교실 임기영 교수, 외과학교실 한상욱 교수, 응급의학교실 정운석 교수가 팀원으로 활동한다. 임상종합실습실운영 TFT는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정운석 교수를 팀장으로 하여 산부인과학교실 김미란 교수, 소아과학교실 박준은 교수, 정신과학교실 신윤미 교수, 신경과학교실 이필휴 교수, 호흡기내과학교실 오윤정 교수, 외과학교실 정용식 교수, 소화기내과학교실 정재연 교수, 순환기내과학교실 최소연 교수, 응급의학교실 정운석 교수, 가정의학교실 김범택 교수가 팀원으로 활동한다.

병원 ▶▶▶



아주대학교병원, 조혈모세포기증운동 실시

종양혈액내과는 지난 9월8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병원 지하 1층 아주홀 앞에서 조혈 모세포기증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기증운동은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혈모 세포 기증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아주대병원 의사 및 간호사, 행정직원, 일반인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조혈모세포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모(母)세포로, 「골수」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다.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등 악성혈액질환 환자가 완치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치료인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유전자(HLA)형이 일치하는 기증자가 필수적이다.

한편, 종양혈액내과는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하고자 오후 3시30분부터 40분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영민 과장을 초청하여 「비혈연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사업의 실제」를 주제로 지하 1층 아주홀에서 공개강좌를 실시했다.



아주난청센터, 귀의 날 맞아 국회의원사당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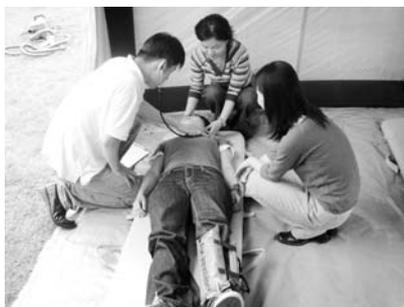
이비인후과 아주난청센터는 지난 9월9일 제3회 아주 인공와우 가족캠프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사당을 방문했다. 이번 가족캠프는 귀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사당에서 열린 「청각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토론회」에 초청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이날 87명의 인공와우 환아 및 가족, 의료진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 소리를 듣고 싶어요 영화상영 및 귀검진 ▲ 개회식 ▲ 기념공연 ▲ 청각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음악회 개최

병원은 개원 11주년을 맞아 지난 9월9일 금요일 오후 6시30분 병원 1층 로비에서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 1부에서는 지난 9월8일, 교직원들의 장기자랑 무대인 아주 페스티벌에서 입상한 4팀의 공연이 진행되어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다. 2부에서는 국내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오페라단에서 활동 중인 Essel Ensemble(클라리넷 전해선, 첼로 오영미, 피아노 백은혜)과 테너 성악가(전봉수, 오창균)를 초청하여 수준 높은 음악회 무대가 이어졌다.



이동응급의료세트 사전점검 및 훈련 실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난 9월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병원 지하 1층 아주홀과 야외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 및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동응급의료센터 사전점검 및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 대량 재난의 개념과 관리(권역응급의료센터 조준필 소장) ▲ 모의 훈련의 실제 및 BTIS(응급의학과 김기운 교수) ▲ 현장 모의훈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간호부, 정형외과 전문간호사 처음 배출 및 국내 선진병원 연수 프로그램 실시



병원 정형외과는 첫 정형외과 전문간호사를 배출했다. 이번
에 정형외과 전문간호사로 배출된 은민희, 장은희 간호사는 지
난 4월부터 9월까지 간호부 및 정형외과 강의와 컨퍼런스 등
을 통해 정형외과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9월22일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한편, 간호부는 지난 9월27, 28일 양일간 병원 지하 1층 수
석홀에서 전국 병원 간호관리자 19명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병
원 연수 프로그램인 「프리셉터쉽」을 실시했다. 임상간호사회에
서 주최하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내 선진병
원 연수 프로그램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신문 · 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Newspaper)

일시	매 체	보도대상자	보도 내용
9. 1	경기일보	정형외과 민병현 교수	아주대의료원, '세포치료제' 개발 착수
9. 1	중부일보	정형외과 민병현 교수	아주대의료원, '세포치료제 개발사업' 유치
9. 2	경인일보	정형외과 민병현 교수	상업화를 위한 제반시스템까지 '세포치료제' 모든 것 갖춘다
9. 2	경인일보	비뇨기와 최중보 교수	성 다이어리(8) - 인류 최초 성병, 임질
9. 7	세계일보	이비인후과 박기현 교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발표
9. 7	경인일보	소화기내과 함기백 교수	홀닥터 - 소염진통제 위에 인종차?
9.12	동아일보	이비인후과 박기현 교수	신생아 500명중 1명 난청 생후 3일내 검사해 보세요
9.14	한겨레	이비인후과 박기현 교수	신생아 500명중 1명 청각장애
9.16	경인일보	비뇨기와 최중보 교수	성 다이어리(9) - 여자도 할말이 있다
9.21	경인일보	정형외과 민병현 교수	세포치료제 대량생산 '첫걸음'
9.21	경기일보	정형외과 민병현 교수	아주대 '세포의약품센터' 연구 착수
9.21	중부일보	정형외과 민병현 교수	난치병 완치, 꿈에서 현실로
9.22	경기일보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비만은 질병이다 - 민병의 근원, 이전 '생존'의 문제
9.23	경인일보	비뇨기와 최중보 교수	성 다이어리(10) - 남자의 고민 '조루증'

방송(Broadcasting)

일시	매 체	보도대상자	보도 내용
9. 9	KBS 9시뉴스	이비인후과 박기현 교수	신생아 난청검사 의무화
9. 9	YTN 뉴스	이비인후과 박기현 교수	청각장애 조기치료 시급
9.10	MBC 뉴스투데이	이비인후과 박기현 교수	조기발견이 중요
9.21	KBS 뉴스네트워크	정형외과 민병현 교수	세포치료화 상업화
9.22	KBS 뉴스광장	정형외과 민병현 교수	'세포치료제 기술개발' 본격화



간호부, 「천사의 날(1004 day)」 봉사활동 실시

병원 간호부는 오는 10월4일 병원 내에서 병원간호사회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1004 day 간호사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날 간호부는 병원 1층 로비에서 사진전 및 간호사와 환자, 보호자가 참여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로비 및 지하 1층 수석홀 앞에서는 혈압, 혈당, 골밀도 측정 등 건강상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외래에서는 혼자 방문하는 노인 환자를 위해 1일 동행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표재성 혈전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38세 남자입니다. 얼마 전 왼쪽 팔 혈관 부근에 몇 군데 멍울이 잡혀 혈관외과 진료를 받았는데 표재성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표재성 혈전이 무엇이고 원인, 치료방법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표재성 정맥 혈전증은 자주 볼 수 있는 질환으로서 자연히 사라지기도 하지만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은 혈관의 상처 즉 외상이나 정맥주사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정맥류 또는 감염에 의해 발생합니다. 혈관 주변의 염증이나 버거씨병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가슴 전면에 발생하는 경우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암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은 정맥의 경로를 따라 대개 통증이 동반된 끈처럼 만져지는 경우 알 수 있고, 염증 반응으로 발열되거나 붉게 됩니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시행하는데 국소적이면 소염제 및 진통제 투여를 하고 일상생활은 영위하도록 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관련 지체를 올려주고 뜨거운 물 찜질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화농이 되면 항생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대개 항생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없는 경우 수술적으로 병변 혈관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때론 심부정맥의 침습여부를 알기 위해 초음파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3~4주 이상 지속되기도 하지만 예후는 비교적 좋습니다. 하지 정맥류와 관련된 경우 제거하지 않으면 재발이 잘 됩니다.

〈 소 동 문 교수 / 흉부외과 〉

치료 받은 치아 금속관에 구멍이 났어요

Q

9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영구치가 나오려면 아직 많이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 저기 충치가 생겨 신경치료를 받고 금속재료를 씌웠습니다. 그런데 3,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씌운 일곱 개 치아 모두에 여기저기 구멍이 뚫렸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인지, 부서져 몸 속으로 들어간 금속 재료들이 유해하지 않은지 궁금하고, 빨리 다시 씌워줘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을 청합니다.

A

유치는 수명이 짧은 하지만, 계승 영구치(유치 아래서 올라오는)가 나기 전에 빨리 빠지게 되면 뒷 치아가 밀려 들어와서 이가 날 자리가 부족하게 되므로 영구치는 덧니가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젓니를 조기에 잃지 않도록 잘 관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경치료가 된 치아는 잘 부서지므로 금속관을 씌워서 보강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사용되는 재료는 음식이나 침에 용해되어도 해롭지 않기 때문에 몸 안으로 흡수된 금속에 의한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씌운 금속이 왜 뚫게 되었나 하는 것인데, 짧은 기간 내에 구멍이 생겼다면 이갈이 습관이 의심됩니다. 금속관이 닳아서 구멍이 나면 음식물이 들어가서 충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아직 빠질 시기가 아니라면 다시 씌워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갈이가 있는지, 그리고 금속관의 상태도 확인하실 겸 치료를 받으신 치과를 다시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고 석 민 교수 / 치과 〉

치과 외래

031-219-5869

국내 첫 수지상세포 백신을 이용한 악성 뇌종양의 임상시험 모집



인체 내에 존재하는 면역계 세포인 수지상세포(樹枝狀, dendritic cell)를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세포 치료제가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받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조경기 교수(뇌종양 특히 신경교종의 최고 권위자)는 식약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임상시험 허가를 얻어 난치성 악성뇌종양의 하나인 교모세포종 환자 우모씨(남, 30세)에 대해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세포항암치료를 지난 9월 9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고, 나머지 임상시험환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임상시험은 뇌종양중 교모세포종으로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가 지원할 수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는 2003년 5월부터 일년간 재발된 난치성 악성 신경교종 환자5명을 대상으로 수지상세포 암 치료백신을 주입한 결과 그 안정성이 인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식약청으로부터 응급임상시험 허가를 얻어 2명에게 백신을 주입한 결과 이들 중 한 명이 백신접종 후 2년째 생존하고 있다.

환자 자신의 혈구세포를 이용한 자가 유래 면역세포에 바탕을 둔 이 치료법은 기존 항암치료와 달리 심각한 부작용이나 항암제로 인한 고통이 거의 없는 무독성의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백신을 투여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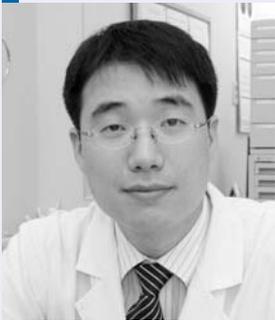
문의처 031-219-5664(아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016-9887-7672(임연희 신경외과 전문간호사)



환자의 요구를 미리 살필 줄 아는 센스, 7층 서병동



외과 이병모 연구강사가 말하는 7층 서병동



7층 서병동에서는 외과 환자만 보고 있지만 외과의 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여기처럼 다양한 환자가 있는 병동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외과」하면 누구나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총수염 환자부터 다발성 외상으로 복부 뿐만 아니라 팔, 다리 여기저기가 불편한 환자, 위암·대장암·간암·담도암·췌장암·유방암·갑상선암 등의 다양한 암환자, 간경화, 신부전 환자, 심지어는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 등 결코 쉽다고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의 환자를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다. 금식 환자들의 수액치료, 환자들의 섭취량과 배설량의 확인, 수술 후 배액관의 관리, 장루 관리, 기본적인 약물을 포함하여 항암제와 면역억제제 등의 투약관리 등 시간과 노력이 많이 가는 기본적인 일도 많지만, 외과 환자의 특성상 언제나 응급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터라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출혈, 장폐색, 간부전 환자들은 언제 중환자로 돌변할지 모르기에 그 중압감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게다가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지치지 않는 외과 의사들과 24시간을 함께 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건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특별한 그들에게 다시금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아주대학교병원의 중간층에 위치한 7층 서병동은 60병상을 보유한 외과 환자 간호부서다. 주로 갑상선·내분비질환, 유방질환, 위·십이지장 및 복부질환, 대장·직장·항문 질환, 간·담도·췌장 질환에 대한 외과적 치료 및 수술 후 보조적 항암요법을 받기 위해 입원하는 곳으로 대부분이 수술환자들이다. 또한 장기이식(신장, 간)은 물론 재해 사고로 인한 외상 환자, 말기 암으로 임종을 준비하는 호스피스 환자까지 다양하다.

매일 평균 5~6명의 수술 환자가 있고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중환자실로 옮겨지거나 병동을 이동하는 환자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처치가 요구되는 현장이다. 때문에 간호업무도 수술 전 준비, 수술 후 전신상태 관찰, 지속적인 수술부위 상태 관찰, 통증간호, 그 외 발생하는 행정업무, 법적 서류 등을 챙기느라 숨 돌릴 시간 없이 돌아간다. 따라서 수술 종류에 따라 예측되는 증상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퇴원 후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19명의 간호사와 4명의 외과 전문간호사가 오늘도 동분서주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술을 앞둔 환자들은 밀려오는 걱정과 불안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설명 듣기를 원한다. 이러한 요구를 파악한 7층 서병



동 간호사들은 4년 전 수술을 앞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합병증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상황별로 내용을 설정해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했다. 현재까지 간호사들이 조를 이뤄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할애하여 주 3회 교육을 하여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술 후 교육을 받은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한편, 환자 입장에서 편안하고 만족해 하는 간호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환자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할 줄 아는 넉넉한 병동이 되고자 언제나 노력할 것이다.

정망래 주임간호사가 말하는 7층 서병동



「제 2의 삶이 시작하는 곳,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곳」.

대학을 마치고 간호사로서의 첫발을 디딘 이곳 7층 서병동에 대한 느낌을 이처럼 상반된 두개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병원생활에 지쳐 있다가 신장이식이나 간이식을 받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환자들을 보면 나또한 활력이 넘치는 것 같고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느낀다. 반면 암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가 합병증으로 재입원하거나, 암이 재발 혹은 전이되어 재입원해 힘든 치료를 견디는 환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고 싶어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맞추며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

외과병동은 수술 후 간호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수술 후 하루 이틀 동안은 긴장된 마음으로 합병증이 없는지 환자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환자와 보호자를 교육한다. 수술 후에는 한 발을 내딛기도 힘들지만 회복하기 위해 애쓰는 환자를 보면 고맙고, 선잠을 자면서도 항상 환자 옆에서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보호자들 역시 고맙다. 고통을 이겨내고 웃으며 퇴원하는 환자들에게서 우리는 보람을 찾는다.

바쁘고 힘들지만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7층 서병동을 나는 사랑한다. 그래서 병동의 모든 환자가 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뛰어다닌다.



자동항법(영상안내) 수술장비

뇌 자동항법영상안내 수술 모식도



자동항법(영상안내) 수술 장비란 자동차, 비행기 등에서 인공위성의 위치탐지 센서를 이용하여 현재의 위치와 방향을 추적하여 길을 찾을 때 쓰이는 GPS 시스템의 원리를 이용한 첨단 수술 장비이다. 뇌종양, 뇌출혈, 뇌수두증, 척수종양 등 중추신경계 질환을 수술할 때 적외선 카메라와 광학 디지털 타이저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이미 저장된 환자의 CT 혹은 MRI 사진 영상을 기반으로 3차원적인 모델을 만들어 도로 위에서 길을 찾듯이 수술기구의 정확한 위치가 수술 도중 컴퓨터 모니터상에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수술할 병소 부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주어 피부 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수술 부위를 확인할 수 있어 병소 부위만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수술 시간을 단축하고 정상부위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조작을 피할 수 있어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많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개골에 고정하는 「뇌정위틀」을 이용한 수술과 달리 자동항법(영상안내) 수술 시에는 수술 전날이나 당일 수술하고자 하는 부위의 피부에 몇 개의 표지자만 스티커 붙이듯이 부착한 후 CT나 MRI를 촬영하므로 「뇌정위틀」 탈부착 시 발생하는 통증을 피할 수 있다.

자동항법(영상안내) 수술을 가장 먼저 적용한 분야는 뇌 질환이다. 그러나, 척수종양과 같이 척수 내 질환을 수술할 때도 정확한 수술 부위를 손쉽게 찾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하며, 척추 고정술에도 적용되어 불안정한 척추를 안정되게 만들기 위한 기구 삽입시 실시간 자동항법(영상안내) 장치로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삽입할 수 있다. 또한 슬관절 및 고관절의 인공관절의 삽입, 이비인후과 수술 등으로 그 적용범위가 점점 넓혀지고 있다.

김 세 혁 교수 / 신경외과학교실



인술로 사랑을 실천하는 다보스병원

용 인시 마평동 소재 다보스 병원은 1995년 인수한 용인제일병원이 모태가 되어 1998년에는 용인제일병원으로 격상하였고, 2003년에는 120병상 규모의 증축이 완료되면서 규모가 확대되었다. 2004년 11월에는 다보스병원으로 개명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약하고 있다. 다보스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응급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최신 MRI, 심장초음파, PACS(자동영상전달 시스템) 등 최신 의료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여 현재 140여 병상과 6개 전문 진료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래 「다보스」란 스위스 알프스산맥 내에 위치한 작은 스키 휴양도시의 이름으로, 전 세계의 골절 치료기구본부(AO)가 자리하고 있어 정형외과의 메카로 잘 알려져 있으며, 매년 연말이면 인류복지 향상을 위한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병원명은 이러한 다보스 지역의 특징처럼 정형외과를 포함한 의료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양성범 병원장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항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보스 병원은 참된 인술과 참된 서비스로 환자의 건강과 행복을 첫째로 생각하는 「환자중심의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용인의 북서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증축한 다보스병원은 내원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고교와 연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해외의료선교를 통하여 2002년 네팔, 2003년 우즈베키스탄, 2004년 캄보디아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인술을 펼쳐왔다. 또한 직원들의 활발한 서클활동을 지원하고, 매달 이달의 다보스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 대내외에서 사랑받는 병원이 되고 있다.

이주대학교병원과는 2001년 12월 협력을 체결한 이래 지역사회 의료 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주대학교 병원경영연구센터를 통해 경영진단을 실시하면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끊임 없는 혁신을 통해 사랑, 웃음, 편안함이 가득한 병원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 다보스병원은 용인 시민에게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되고 있다.

김 영 배 팀장 / Q팀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육 · 연구동 건축기금 조성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으로 구성된 우리 아주대학교의료원은 1994년 개원한 이래 11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국내외 연구실적, 학생들의 입학성적, 의사 및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률, 우수한 병원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국내 최상위권 의료기관으로 성장하였고, 지역사회와 함께 한 발전의 노력으로 지역사회가 자랑하는 의료원, 지역사회의 사랑을 받는 의료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의료원 가족 여러분들과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동문 및 지역사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더 큰 성장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의 실천을 통해 오늘의 발전에 만족하지 않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개원 20주년 아주대학교의료원의 모습은 「수 개 진료분야의 최고수준 도달, 세계적 수준의 연구경쟁력 확립, 국내 3위 이내 의과대학으로의 진입」 등을 통해 고객중심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의료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의 꿈은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 성원이 밑거름이 되어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려 깊은 관심과 성원은 세계적 의학수준의 발전과 건강사회 구현이라는 의료원의 꿈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후원자에 대한 예우

후원 금액	예 우
1백만원 이상	건물벽면에 회원성명 영구 보존
5백만원 이상	차량출입증(1년) 건물벽면에 회원성명 영구 보존
1천만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진료비 감면(3년, 연5백만원 한도) 종합건강진단 무료 쿠폰(1매 1회) 차량출입증(3년) 건물벽면에 회원성명 영구 보존
5천만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진료비 감면(10년, 연5백만원 한도) 종합건강진단 무료 쿠폰(2매 1회) 차량출입증(10년) 건물벽면에 회원성명 영구 보존
1억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진료비 감면(평생, 연5백만원 한도) 종합건강진단 무료 쿠폰(2매 평생) 차량출입증(평생) 건물 또는 실명명 건물벽면에 회원성명 영구 보존

교육 · 연구동 건축 개요

- 건축 장소 : 아주대의료원 내 건물면적 약 5,000평 규모 (지상 10층, 지하 2층)
- 건물 용도 : 첨단 Biotechnology Center 및 교육동 (임상연구실험, 벤처, 의료수익, 기반시설, 강의동 등)
- 건축 시기 : 2007년~2012년 예상

후원 방법

현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형태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
 - 제일은행 692-20-154295
 - 제일은행 692-20-166907
 - 국민은행 593501-01-082841
 - (예금주 : 아주대의료원)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 후 사무국에 전화 통보
- 지로납입
 - 지로번호 7303519
- 안내전화
 - 발전후원회 사무국 ☎ 031-219-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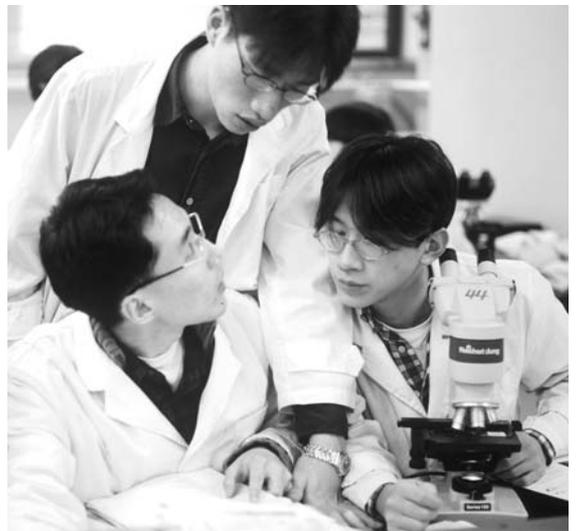
순천성가톨릭로병원, 2천5백만원 기부



순천성가톨릭로병원이 9월27일 화요일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으로 2천5백만원을 기부했다.

순천성가톨릭로병원은 아주대학교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병원으로, 민미애 병원장은 27일 아주대학교병원 경 기념부권역 응급의료센터 증

축 기공식 참석과 함께 소의영 아주대병원장을 방문하여 『두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기를 바라며, 아주대학교의료원의 발전기금으로 2천5백만원을 기부한다』고 전했다.



교육 · 연구동 건축기금 모금 현황

구 분	건수	납입총액	비 고
월 간	3건	53,301천원	
누 계	399명	2,341,452천원	

월간내역

성 명	약정 · 납입액	비 고
정 중 섭	10,000,000	(주)다림바이오텍 대표
태평양제약(주)	30,000,000	본교경유 후원금 기탁
황 증 익	10,000,000	전 법인 상무이사
교직원 분납분	3,300,870	(교직원 급여 공제)

(가나다순)
2005.8.22 ~ 9. 21

게시판

경기일보에 「비만은 질병이다」연재 시작



경기일보와 아주대학교병원이 공동으로 「비만은 질병이다」 특집기획을 마련, 지난 9월22일부터 매주 목요일 게재되고 있다.

「비만은 질병이다」 특집기획에서는 「왜 비만이 문제인가」부터 시작해 ▲ 한국형 비만의 원인 ▲ 소아비만, 복부비만, 산후비만, 부분비만 등 비만의 유형 ▲ 치료 및 식이요법 ▲ 사후관리까지 아주대학교병원 비만클리닉 김범택 교수를 비롯하여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 소아과 황진순 교수, 가정의학과 김광민 교수, 외과 한상욱 교수, 성형외과 박동하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현대인의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인 비만은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질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는 17억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단순히 「뚱뚱하다」는 외모상의 특징을 가진 인구가 늘어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심장질환 등 다른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구가 급증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에 경기일보와 아주대학교병원은 이번 「비만은 질병이다」 특집기획을 통해 비만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치료방법 및 예방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문클리닉 진료시간표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4310 비만클리닉	강신연	5818		월	수부 및 상지외과	
	남예연	5902		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서정희	5818	화	월, 수, 금	류마티스 질환, 루푸스 등	
	민병현	5543		수	관절염 초기치료 - 저장도 초음파	
	전장훈	5542	화		척추외과	
	원예연	5542	월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해의연수중		수부 및 상지외과	
김현정	5543	수		발목 및 발의 질환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유전클리닉 5979	김현주	5903	화, 목	수	각종 유전질환, 유전성 암질환	
	김현주	5903	화, 목	수	유전상담	
통증클리닉 5896	김찬	4331	월, 수, 금	월	삼차신경통, 다관절, 수족발증, 대상포진후 신경통	
	한경림	4331	화, 목, 수	수, 금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두통, 교감신경위축증	
	일반진료	4332		월, 화, 목, 금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등 암성통증 기타	
유방클리닉 4744	김명옥	4743		월	유방질환	
	정용식	4743	월, 화, 목	목*	유방질환	
	고진철	4743		수	유방질환	
학습클리닉 5814	신유미	5814		화	스아·청소년 정신과, 발달장애	
	조선미	5814	금, 토(격주)	수, 금	심리검사프로그램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비고
소화기내과	간암클리닉 5976	조성원	5969	월, 화, 목	
		정재연	5963	금	화, 목
		왕희정	5753	금	화, 금
		원재환	5863	월, 수, 금	
순환기내과	심부전 및 관막질환 클리닉 5717	신준현	5973		화
호흡기내과	여행자 예방접종 클리닉 4730	최영화	4730	월, 목	수
알레르기클리닉내과	벌독(곤충독) 알레르기클리닉 5902	박해심	5905	월, 금	
		남동호	5905	화	목, 금
정신과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클리닉 5814	임기영	5810	화	목(19:00-21:00)
피부과	안면색소클리닉 5917	강희영	5914	수, 금	월, 수(레이저치료)
흉부외과	하지정맥류클리닉 5752	이철주	5752	금	화, 금
		소동문	5752	월, 수	월
신경외과	뇌졸중 혈관내수술클리닉 5664	신용상	5664	목	화, 목
		김선용	5858	수	
성형외과	구순구개열클리닉 5614	박명철	5611	수	
		안면윤곽미용클리닉 5614	박동하	5613	화, 목
산부인과	불임 및 습관성 유산클리닉 5597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김미란	5643	화, 목	화, 목
안과	콘택트렌즈클리닉 5673	양홍석	5671		화, 금
		의안클리닉 5673	문상호	5670	
비뇨기과	요실금클리닉 5585	최중보	5587	화, 금	수
		야노증클리닉 5585	김영수	5586	수
가정의학과	비만클리닉 5959	김범택	5957	월, 수, 목	화
치과	인공치아식클리닉 5869	이정근	5869	화, 목, 금	
		고석민 송승일	5869	수	

클릭!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www.ajoumc.or.kr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05년 10월1일 현재)

아주대학교병원은 토요일에도 특진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의사명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소화기내과	조성원	5969 월, 화, 목		간질환	
	김진홍	5962 화, 금	수	위장관치료내시경, 췌·담도질환	
	함기백	5963 월, 목	화	위장질환	
	이광재	5969 화, 금	목	위장질환, 위장관 기능장애	
	유병무	5962 월, 수	금	췌·담도질환, 치료내시경	
	이기명	5963 수	월, 수	위장 질환, 대장질환	
	정재연	5963 금	화, 목	간질환	
	최준혁		화	소화기질환	
	차충근		월	소화기질환	
	명보현		금	소화기질환	
순환기내과	탁승재	5973 화, 수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신준환	5973 월, 목	화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고혈압	
	황고승	5974 해외연수중		부정맥, 심전기생리검사, 전극도자결속, 인공심박동기	
	윤영호	5975 화	목,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최소연	5974 금	화,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최병주	5973 수	월, 금	부정맥, 심장혈관질환	
	강수진	5973 금	월, 목	관상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고혈압	
	안성균	5974 화	금	심장혈관질환	
	최정현	5973 수	목	고혈압, 심장질환	
	임홍석	5974 월, 목		고혈압, 심장질환	
호흡기내과	황성철	5967 월, 화, 금	목	폐암, 감염성폐질환, 폐결핵, 만성기침	
	박광주	5967 화, 금	월, 목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중환자치료학	
	최영화	4731 월, 목	수	발열, 감염질환, 에이즈, 예방접종, 결핵	
	신승수	5968 화, 수	월, 금	만성폐질환, 중환자치료, 폐암, 폐결핵	
	박주현	4731 목, 금	월, 화	만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중환자치료, 폐결핵	
	오윤정	5968 월, 수	화, 금	호흡기질환	
내분비내과	이관우	5956 월, 수, 금	목	당뇨병, 내분비대사질환	
	정윤석	5961 화, 목	월, 금	골다공증, 뇌하수체질환	
	김대중	5955 월, 화, 목	수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갑상선질환	
신장내과	김혜진	수, 금	월, 목	갑상선질환, 당뇨병, 뇌하수체질환	
	송경은	금	화	당뇨병, 갑상선·내분비질환	
	정선혜	수	목	당뇨병, 갑상선·내분비질환	
	일반진료	5961	화	내분비대사질환(제진만 진료)	
중양혈액내과	김홍철	5992 수, 목		혈액암, 혈액응고질환	
	임호영	5991 월, 화, 목		소화기암, 악성육종치료	
	최진희	5994 수, 금	월	두경부암, 폐암, 유방암치료	
	박준성	5992 해외연수중		조혈모세포이식술	
	장준호	5990 월, 화, 금	화	악성혈액질환, 빈혈	
	강석운	5992 월, 수, 목, 금		조양학, 혈액학	
임상기립수사내과	박해심	5905 월, 수, 목	수	천식, 알레르기질환	
	남동호	5905 화, 목	화, 금	천식 및 알레르기질환, 류마티스 및 류무스 질환	
	서정희	5818 화	월, 수, 금	류마티스 질환, 류무스, 통풍	
	예영민	5905 월, 목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	
	일반진료	5905	화	알레르기·류마티스 질환	
내과일반	5970	월~금	월~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진료과 의사명	진료시간 의사명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소아과	홍창호	5620 월	수, 금	청소년 질환, 성장과 발달	★
	김성환	5616 화, 목	목	신경계질환	
	배기수	5623 월, 화, 목	목	신장질환	
	이수영	5623 수, 목	목, 화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박문성	5617 월, 수	목, 금	미숙아, 신생아질환	
	정조원	5621 목, 금	월	심장질환	
	황진순	해외연수중		소아내분비 및 유전대사 질환	
	박준은	5617 화, 목	목, 목	소아혈액·종양질환	
	유재은		월, 목	소아일반질환, 신생아질환	
	석효정	금	금	저신장, 성조숙증	
신경과	구남향	금	수	소아일반질환, 호흡기·알레르기질환	
	일반진료	월, 화, 수, 목	화, 금		
	허균	5659 월, 목	화	간질, 지매, 뇌혈관질환	
	신주인	5653 화, 목	월, 금	뇌졸중, 척수, 근육 및 말초신경질환	
	방오영	5657 월, 금	화, 수	뇌졸중, 지매	
	이필휴	5657 화, 수	월, 목	뇌졸중, 파킨슨병, 운동장애	
	김병곤	5657	목	뇌혈관질환	★
	서정임	5657	화, 수	말초신경질환, 뇌혈관질환	
	일반진료	5657 수, 금	목, 금	뇌혈관질환	
	정신과	정영기	5811 월, 수, 금	화	우울증, 스트레스 관련 장애
임기영		5810 화	수, 금	불안장애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이영문		5810 목, 금	월, 목	정신분열의 재활치료, 우울증	
노재성		5811 수, 목	월, 금	우울증, 조울증 및 신경성 신체장애	
신윤미		5812 월, 금	화, 목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지적장애	
일반진료		화	화, 목		
피부과	이은소	5912 화, 목	목(예약), 수	건선, 여드름, 베체트병(화·레이저치료)	
	김유찬	5914 월, 화, 목	화, 목(예약)	피부종양, 화학박피술(금·레이저치)	
	강희영	5914 수, 금	월, 목(예약), 목	백반증, 피부색소질환(수·레이저치료)	
	이상원	5912 월, 목(예약), 금	월, 목(예약), 금	일반피부질환 (목·레이저치료)	
	레이저치료	5915 월~금	월~금	예약에 의함	
외과	김명욱	5761 월, 수		난치성 소화기(위, 담도, 췌장)질환	
	조용관	5756 화	화, 수	위장 및 복부질환	
	소의영	5756 수		갑상선·내분비 질환, 두경부 질환	★
	홍정	5754 화, 목		소아외과(결핵, 종양, 탈장, 폐경기능장애)	
	왕희정	5753 금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담도	
	서광욱	5753 월(재진)	월(초진),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오창권	5756 월, 금	월, 금	장기이식외, 혈관외과(흉·골·신경·소장)	
	김옥환	5756 화, 목		간·담도·췌장 질환	
	한상욱	5754 수, 금	월	위·십이지장 질환, 복강경외수술	
	정용식	4743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일반진료	이국종	5753 목		외상외과	
	김봉원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담도, 급성복통	
	이병모	화		장기이식외과, 혈관외과, 급성복통	
	진성호	목		위십이지장질환, 급성복통	
	최태웅	수		담도계 질환, 복강경 수술	
	고진철	금		갑상선·내분비질환, 두경부질환	★

외래진료 접수시간 * 평 일 오전 8:00~오후 4:00
* 토요일 오전 8:00~오전 11:30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031) 219-5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5546
- 응급의료센터 : (031) 219-60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명 의사명	진료 시간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흉부 외과	이철주 5749	금	화, 금	성인심장혈관외과, 하지정맥류	
	소동문 5750	월, 수	월	소아심장혈관외과, 하지정맥류, 말초혈관질환	
	최호 5750	화	화, 금	폐암, 종격동질환, 다한증	
	이상수 5750	목	월, 목	식도암, 흉벽기형, 일반흉부외과	
5717 5752	홍준화 5750	수	심장혈관외과		
정형외과	강신영 5544		월*, 목	수부 및 상지의상, 기형, 미세수술외과	
	민병현 5543	월, 금(초진)	화	슬관절 및 관절질환, 관절염 초기치료, 저장도수용과	
	전창훈 5542	화*, 목, 화	화	척추외과, 측만증, 최소침습수술	
	원예연 5542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해외연수중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 혈관신경외과	
	김현정 5542	수*	화, 목	발목 및 발의 질환	
	전영수 5818	월, 금	수	골연부조직 종양 및 외상학	
	조재호 5542	수	월, 화, 금	소아 정형(변형교정, 키 늘리는 수술), 외상	
	김광균 5542	수	수	인공관절	
	김경호 5542	수	금	척추외과	
	임한기 5542	목	수	수부외과	
5545	일본진료	화			
신경외과	조경기 5661	월, 목	목	뇌종양, 척추질환	
	조기홍 5662	수	월, 수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윤수한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뇌종양	
	안영환 5662	화, 금	금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방사선수술, 뇌종양	
	신용삼 5663	목	화, 목	뇌혈관질환, 뇌졸중, 중재적 치료	
	김세희 5663	수	수, 금	뇌종양, 외상	
	임응철 5663	월	월	뇌종양, 외상	
	원근수 5663	수	월	척추질환, 외상	
	심숙영 5663	수	화	뇌종양, 외상	
	5664	일본진료	월, 금		
상해외과	박명철 5611	월(초진), 수, 금	수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
	박동하 5612	화, 목	목	수부성형, 미용성형	★
5614	일본진료	월, 금	월, 금		
산부인과	오기석 5595	화, 목, 금	수	부인과 질환	
	유희석 5594	화, 목	월	부인암	
	김행수 5593	월, 화, 목	화, 금	고위험산모, 조음과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장기홍 5594	금	화, 수, 금	부인암, 복강경	
	양정인 5593	해외연수중		고위험산모, 조음과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불임, 복강경(자궁근종, 난소종양), 자궁내막증	
	이정필 5595	월, 수	수, 목	부인암, 비뇨부인과, 복강경	
	김미란 5643	화, 목	화, 목	불임, 복강경(자궁근종, 난소종양), 미혼여성	
	임윤경 5593	화, 목	월, 화, 목	산과	
	5597	일본진료	월, 금	월, 수, 목, 금	
안과	유호민 5669	월, 수, 금	화(예약), 목(예약)	망막, 유리체, 백내장	
	안재홍 5672	월, 화	금	녹내장, 백내장, 굴절수술	
	문상호 5670	금	화, 목	안성형, 백내장	
	장윤희 5672	목	월, 목	사시, 소아안과	
	양홍석 5672	화, 목	화, 금	각막, 백내장, 외안부, 렌즈클리닉	
	문찬식 5672	화, 수(레이저 치료)	수	망막, 백내장, 유리체	
5673	일본진료	월, 금	월, 금		
이비인후과	박기현 5742	월, 금	수	난청,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이지림증	
	정연훈 5742	화(신경클리닉, 목(이비인후))	금	난청, 인공와우, 어지럼증, 보청기, 귀종양	★
	김철호 5746	월, 목	수, 목	두경부 종양, 음성장애, 기관, 식도 질환	
	김현준 5746	화, 금	화	비염, 부비동염, 후각장애	
	송정환 5746	수, 금	월	비염, 부비동염	★
	신유리 5747	월, 화, 목	수, 목	난청, 중이염	★
5747	조민정 5747	수	수, 목	중이염, 비염, 부비동염	★
일본진료	월, 금	월, 금	월, 금		

진료과명 의사명	진료 시간	오 전	오 후	세부전공	비고
비뇨기과	김영수 5586	수	월,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김세중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안현수 5588	목	월, 화	요로결석, 불임	
	최중보 5587	화, 금	수	배뇨장애, 요실금, 남성과학(성기능장애)	
	안병철 5588	월, 목		비뇨기종양(암), 요로결석	
	허용선 5588	수, 금			
5585	일본진료		화, 수, 목, 금		
재활 의학과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추손상	
	나은우 5796	수, 목	화,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사 재활	
	임신영 6440	화(사경클리닉)	월, 수, 금	소아재활, 학습장애, 언어발달장애	
	윤승현 5802	월, 금	화, 수, 목	노인재활, 근골격계 재활, 스포츠손상재활	
5802	일본진료	화	목		
지방선 외과	김선용 5854	월, 화, 목		뇌혈관질환 중재적 치료	
	윤재환 5863	월, 수, 금		혈액관(중재적) 치료, 혈액관(후부혈관) 치료	
5823	일본진료	5145	수, 금	화, 목	
방사선 종양학과	전미선 5884	월, 금	월, 금	종양(부인과, 유방암, 소화기암)	
	오영택 5884	월, 금	월, 금	종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강승희 5884	해외연수중		종양(뇌종양, 육종, 소아암)	
5884	일본진료	5947	월, 금	월, 금	
핵의학 외과	윤서남 5939	월, 금	월, 금	핵의학(전단, 동위원소치료)	
	윤준기 5947	월, 금	월, 금	핵의학(전단, 동위원소치료)	
산업 의학	이경중 5645	화, 금	화, 금	직업성 질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박재범 5295	월, 목	월, 목	직업성 질환	
5644	일본진료	5644	월, 금	직업성 질환	
가정 의학과	김광민 5958	월, 수, 금	화	만성피로, 노화관리, 남성갱년기	
	박색별 5957	화, 목, 금	월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김법택 5957	월, 수, 목	화	비만, 골다공증	
	주남석 5959	월	수, 금	건강증진, 비만	
	공미희 5959	화	월, 목	갱년기 관리, 피로, 건강증진	
5959	일본진료	4808	화, 금	월, 금	
치과	이정근 5869	월, 화*, 수, 목*	화*, 수*	악안면기형(주걱턱), 치과임플란트	
	고석민 5869	월, 화, 금*	월, 수, 금*	치과임플란트, 심미보철	
	유성근 5869	수*, 목	월, 수, 목, 금	치열교정, 실측교정, 악안면기형	
	송승일 5869	화, 수*, 목*, 금	화*, 목*	턱관절 장애, 치과임플란트	
	신혜진 5869	월*, 화*, 목, 금	월*, 목, 금	근관치료, 치아미백	
	5869	일본진료	5869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진료과명 의사명	진료 시간	오 전	오 후	저녁	야간	세부전공	비고
응급 의학과	조준필 6005	월, 수	화		수	외상외과, 응급질환	
	정윤석 6005	목, 금	월, 금	화	화	소생의학, 임상독성학, 응급질환	
	이국중 6005	목*	수			외상외과, 외과계 응급질환	
	민영기 6005	화	월, 화, 수	목	목	중환자의학, 소생의학	
	김기운 6005	목, 금	목, 금	월	월	임상독성학, 응급질환, 소생의학	
6011	배영신 6005	월, 화, 수	목	수, 금	금	응급질환, 소생의학	

▲ 응급의학과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순번대로 진료합니다.

토요일 특진운영 안내

토요일 외래진료는 주마다 특진의사가 비필 수 있으나
세부전공과 관련없이 모든 질환을 진료합니다.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는 특수진료입니다.
3. *는 세부전공만 진료합니다.
4. □는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